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전서 표준새번역』¹⁾을 중심으로-*

민영진**

1. 성차별 표현이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글이나 말에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이란, 남녀를 대조시켜 남성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기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따라서, 남성은 주체적으로 나타내고, 남성과 관련된 표현이나 묘사는 정중하고 우아하게 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종속적으로 나타내고, 여성과 관련된 표현이나 묘사는 속어(俗語)나 비속어(卑俗語)로 비하(卑下)하여 표현하는 온갖 표현을 일컫는다. 이러한 차별 표현은, 성서 번역의 경우, 성서의 원문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원문과는 무관하게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과는 반대로, 번역자나 번역 팀의 번역원칙과 번역철학에 따라, 원문의 성차별 표현이 번역문에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원문의 성차별 표현이 메시지의 본질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성차별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원어의 메시지를 오늘의 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다.

성차별 표현을 내용별로 세분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1. 문법상의 남성형 표현: 남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말할 때, 남성에게 쓰는 표현을 써서 여성을 거기에 끼워서 넣는 경우가 대표적인 성차별 표현이다. 남성에게 쓰는 표현이란, 문법적으로 남성형을 쓰는 것이나, 여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남성형 단어를 쓰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으로는 남성과

* 위 논문은 2001년 5월 12일 “한미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대한성서공회 총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번역컨설턴트, 구약학

1)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은 2001년에 『성경전서 표준새번역개정판』으로 개정된 이후 2004년 9월에 『성경전서 새번역』으로 개칭되었다. 본 논문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초판(1993)에 나타난 성차별 표현을 고찰한 것이다.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으나, 문법 형식에 있어서 남성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성이 쉽게 잊혀지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다. 이것이 번역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반영될 때는 마치 남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다. 형식일치번역(形式一致翻譯 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에서 문법상의 남성 표현이 실제적인 남성 표현으로 번역되면, 원문 독자의 본문 이해와 번역문 독자의 본문 이해가 서로 달라지는 오역(誤譯)이 발생하는 것이다.

1.2.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 남녀를 다 포함하는 말일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성 언중에게 유쾌(愉快)하지 않은 말일 때는 남자를 슬며시 가리고, 마치 그 말이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여성형을 써서 표현해 버리는 수사법(修辭法)도 있다. 즉 인간의 잘못을 묘사할 때 여성 관련 언어를 쓰는 것이라든가, 신을 향한 인간의 배신이나 반역을 말할 때 간통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여성 쪽에서 저지르는 간통이라고 보고, 그러한 배신의 주체를 “음녀(淫女)”라고 표현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남성의 음행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의 음행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규탄하는 한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합법화하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1.3. 신(神)의 남성형 표현: 남녀의 성을 초월하는 신(神)을 묘사할 때 남성 인칭대명사로 표현하여 은연중 신이 남성에 가깝다는 생각, 곧 남자는 신성(神聖)과 가깝다는 생각을 주입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도 성차별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1.4. 여성 참여 제한: 성서의 필자 자신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보는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진술도 성차별의 한 유형이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이, 족보(族譜)나 계보(系譜)에서 부모를 언급함에 있어서 모계를 생략하거나 종속적으로 언급하고, 때로는 부계(父系)만 언급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성차별 표현으로 지적될 수 있다.

1.5. 남녀의 차별 표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등장할 때, 남자를 가리키는 말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을 달리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남녀를 구별할 뿐 아니라, 남자에게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나 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여자에게는 꼭 여성임을 밝히는 구체적인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의 왜곡 현상이다.

1.6. 존대법의 차등 적용: 원문과는 무관하게 번역어가 우리말처럼 존대법을 가진 특수한 말일 때 생기는 성차별 현상도 있다. 남녀간의 대화에서 남녀 관계를 여전히 수직의 상하관계로 본 개화기의 번역에 여성은 남성에게 존대말을 쓰고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쓴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존대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존대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 문장도 번역할 수 없다. 존대법의 화계(話階) 결정은 번역자의 창조적인 작업에 속한다.

1.7. 여성 비하 표현: 일반적으로 여성 등장 인물에 대하여 여성을 비하(卑下)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문 자체에서 유래하기도 하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원문에서 유래하는 것은 구약의 지혜문학인 “잠언”과 “전도서”, 외경(外經) 혹은 제2정경(正經)인 “지혜서”와 “집회서”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개역』 잠 21:9)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여성 비하 속담이 많이 나온다. 번역 과정에서 유래하는 대표적인 예는 원문의 “어머니”나 “여자”를 “어미” “시어미” “계집” 등으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개역』 안에서 두루 나타난다.

1.8. 성차별 이데올로기: 중립적인 본문마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예속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번역하는 것에서도 성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비평과 본문편집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의식이 반영되기도 한다.

첫 네 가지(1-4)는 원문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가지(5-6)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마지막 두 가지(7-8)는 원문과 번역에서 다 발생하는 것이다.

2. 기존의 우리말 번역에 성차별 표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기존 번역이란 『개역』 『개역개정판』 『공동번역』을 말하고 새로운 번역이란 『표준새번역』을 일컫는다. 기존 번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역』이다. 따라서, 기존 번역에서 성차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할 때에는 본 논의에서는 자주 『개역』의 본문이 인용된다.

『개역』이란 1956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의

대다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번역성서를 일컫는다. 이 번역은 『신약전서』가 1900년에 완역되어 나왔고, 『구약전서』는 1911년에 완역되었다. 1912년부터 개정되기 시작하여 1938년에 『성경전서 개역』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다. 그러다가 여기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른 표기를 적용하면서부터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1952년에 시험본이 나왔고, 1956년(표제지 연도)에 결정본이 출간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²⁾.

『개역개정판』(1998)이란 『개역』을 개정한 것으로서, 오역을 바로잡고, 맞춤법을 바로잡고, 난해한 번역을 알기 쉽게 다듬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일컫는 것이다.

『공동번역』(1977)이란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성서』로써, 번역 원칙에 있어서 형식일치번역(形式一致翻譯 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을 피하고 내용동등성번역(內容同等性翻譯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 or functional equivalent translation)에 따라 번역한 현대어 번역 성서이다.

『표준새번역』(1993)이란 새롭게 시도한 번역이다. 현대어를 사용하고 쉬운 말을 구사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번역 원칙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역 원칙과 그 이후에 발전된 새로운 번역 원칙을 종합적으로 함께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 번역이다. 『표준새번역』은 내용동등성, 혹은 기능동등성의 정도가 『개역』보다는 강하지만 『공동번역』처럼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삼갔다.

2.1. 문법상의 남성형 표현: 남성 용어로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경우

1) 히브리어 “하아담(אָדָם)”과 “오토(אָנֹכִי)”

문맥에 따라 남녀를 다 지칭하는 “사람”을 뜻하는 “하아담(אָדָם the man)”이 영어 번역에서 “the man”으로 번역될 경우, 이것은 쉽게 “남자”로 오해되거나, 혹은 비록 히브리어 “하아담”을 “사람”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man”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은연중 “사람 곧 남자”라고 하는 등식이 쉽게 성립된다. 더욱이 실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가 남성 삼인칭 단수[“그를(אָנֹכִי him)”]로 표현될 때, 그리고 영어로 “him”이라고 번역될 때 “사람 곧 남자”라고 하는 등식이 더 확고하게 확인되어 버리고 만다. KJV 번역이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2) 현재의 1956년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실제 발행 연도는 1961년이다. 표제지(標題紙)의 1956년은 현재와 같은 편집이 완료된 해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표제지의 발행 연도와 간기(刊記)의 발행 연도는 일치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번역의 경우는 편집 완료 연도와 출판 연도가 차이가 있다.

KJV Gen 1:27 So God created *man*(אָדָם)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אִישׁ);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God created *man*)고 할 때, 위 영어 번역은 “man”으로 번역하였다. 이 말은 “남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in *his* own image)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남성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소유격 “his”를 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다(created *he* *him*)고 할 때도 하나님을 남성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he”를 써서 표현하였다.

KJV의 이러한 성차별 표현이 NRSV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줄어들었다. “man” 대신에 “humankind”를 쓰고 있다. “사람”을 남성을 가리키는 “him”으로 받지 않고, 남녀를 다 포함하는 “them”으로 받고 있다.

NRSV Gen 1:27 So God created *humankind*(אָדָם) in *his*(-1)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אִישׁ lit.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אָדָם).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고, 아직은 없다.

- 『개역』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공동』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그가]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 『표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³⁾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개역개정』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위의 여러 우리말 번역에서는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그의(-1 his)”를 번역할 때 성의 구별이 없는 “자기(의 형상)”이라고 번역하거나, 역시 성의 구별이 없는 삼인칭 극존칭을 써서 “당신의 (형상)”이라고 번역하였다. “그의”를 쓴다고 해도 우리말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삼인칭 단수 소유격 인칭대명사이다.

3) 동사 안에 들어 있는 남성 3인칭 단수 주격 “그” 대신에 실명사 “하나님”을 쓰고 있다.

히브리어 “하아담” 같은 것도 영어로는 “man”으로 번역되어 남성의 뜻을 나타내지만 우리말 “사람”은 역시 성의 구별이 없는 말이다.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말로 문자를 따라 번역할 경우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그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다)” 등에서 “그”는 우리말에서는 남녀를 다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묘사했느니 하는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인칭대명사 삼인칭 단수인 “그”에는 남녀 구별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언중 사이에 “그”는 남성 삼인칭 단수이고, 여성 삼인칭 단수는 “그녀”라고 하는 이해가 편만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영어 학습 교실에서 영어의 여성 3인칭 단수 she와 her를 “그녀”라고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용법은 오늘날 와서 보편적인 것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2) 히브리어 “바님(בָּנִים)”과 그리스어 “휘오이(υἱοί)”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을 뜻하는 말과 “딸”을 뜻하는 말이 따로 있다. “벤(בֶּן)”은 아들을 가리키고, “בַּת(בַּת)”은 딸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서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아들”을 뜻하는 “벤”의 복수형 명사 “바님(בָּנִים)”이 자주 쓰인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자는 비록 “바님(아들들)”이라고 할 때에도 문맥을 보아서 그 말이 “아들들”만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들들과 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지를 안다. 그러나 우리말처럼 그런 용례가 없는 언어에서는 “바님”을 문자 그대로 “아들(들)”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일 뿐 남녀를 다 포함하는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사람은 없다.

다음에 인용한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복수 “바님” 혹은 “휘오이”는 “아들들” 뿐 아니라 문맥에 따라 “자녀들” “청년들” “단원(團員)” “신도들” “추종자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벤/바님(בֶּן/בָּנִים)”의 뜻⁴⁾

1. 여성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이, 곧 “아들” *son, male child, born of a woman;*
2. 복수로 쓰일 경우에는 남녀를 다 포함하는 “아이들” *children (male and*

4)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ed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on the Lexicon of William Gesenius*, Edward Robinson, tran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07, 1972).

female); 3. “젊은이, 청년”(youth, young men); 4. 짐승의 “새끼”(the young of animals); 5. 식물의 “싹”(the young of plant-shoots); 6. 비유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lifeless thing); 7. 단체나 조직이나 길드의 “일원(一員)”(member of a guild, order or class)

마우어(W. Bauer)의 “휘오스/휘오이(υἱός/υἱοί)”의 뜻풀이⁵⁾

1. 일반적인 뜻은, a. 문자적으로 a. 직계 사내 아이(of the direct male issue of a person), β. 짐승의 새끼(of the immediate offspring of an animal). b. 확대된 뜻으로는 a. 후손(of one who is not a direct offspring descendant), β. 양자(of one who is accepted or adopted as a son). c. 비유적으로는 a. 학생, 추종자(of a pupil, follower…), β. 단체의 일원(of the individual members of a large and coherent group), γ. 인격적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신도들”, [(하나님의) “자녀”](of those who are bound to a personality by close, non-material ties; believers, [children of God]), δ.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처럼 다른 명사와 소유 관계로 연결되어 어떤 특징을 공유하거나 나타내는 집단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구성법(構成法)이 그대로 그리스어 번역에 반영된 것이다(with genitive, of the thing, to denote one who shares in this thing or who is worthy of it, or who stands in some other close relation to it, often. made clear by the context; this construction is probably a Hebraism in the main; [children of light, children of darkness])

로(J.P. Louw)-나이다(E. Nida)의 “휘오스/휘오이(υἱός/υἱοί)”의 뜻풀이⁶⁾

a. 직접 낳은 “아들”(son [own]), b. 친밀한 관계에서 “아들”(son [endearment]), c. 남자 후손(male descendant [human]), d. 짐승의 “수컷”(male offspring [animal]), e. 사람(person of), f. 추종자(follower), g. 시민(citizen), h. 동족(kind of)

합성어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υἱός τοῦ θεοῦ -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υἱός τοῦ ἀνθρώπου - 인자(人子), 사람의 아들(Son of Man), υἱοί τῶν ἀνθρώπων - 백성(people), υἱοί Ἰσραήλ - 이스라엘 백성(people of Israel), υἱοί τὰς βασιλείας -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υἱοί τὰς ἡμέρας -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υἱοί τοῦ φωτός -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υἱοί τοῦ αἰῶνος τούτου - 이 세상 사람들(non-religious people), υἱοί τοῦ νυμφῶνος - 혼인

5)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A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Walter Bauer's Griechisch-Deutscher Worterbuch zu dem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überigen urchristlichen Literatu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833.

6) Johannes P. Louw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1.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식 초대 손님(wedding guests)

기존 번역이 “바님”이나 “휘오이”를 일괄적으로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것에는 성차별 표현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가 있다. 『개역』 성서에 2085회 나오는 “아들(들)”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은 “자녀” “자식들” “아이들” “아들 딸”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 『개역』 마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 『개역』 마 5: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개역』 롬 8:1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 『개역』 롬 9:2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 『개역』 엠 1: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개역』 히 12: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 『개역』 히 12:5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 『개역』 히 12:6 주께서...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 『개역』 잠 3:12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 『개역』 잠 8: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 『개역』 잠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 『개역』 잠 10:1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 『개역』 잠 10: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 『개역』 잠 10:5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 『개역』 잠 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 『개역』 잠 17: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 『개역』 잠 19:13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 『개역』 잠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을즉 그를 징계하고
- 『개역』 잠 28: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3) 히브리어 “악힘(אָחִים)”과 그리스어 “아델포이(ἀδελφοί)”의 번역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는 형제나 자매를 가리키는 표현이 따로 따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남성 형제의 복수형 “악힘(אָחִים)”과 “아델포이(ἀδελφοί)”를 써서 나타내는 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경우가 같다. 히브리어 “악힘”이나 그리스어 “아델포이”가 문맥에서 분명히 “형제와 자매(兄弟姊妹)”를 뜻하는데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형제들”이라고만 번역해 놓으면, 우리말을 쓰는 언중은 그것이 남자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만 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일이 있다. 그것이 후일에 “야고보서”라는 책으로 묶였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인 신도들을 부를 때는 “아델포이(형제들)”라는 표현을 쓴다.

약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의 편지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 『개역』 번역문으로 그의 편지를 읽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인상은, 그 편지의 수신자가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서 수신자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신자를 “형제”로 호칭한 예는 같은 편지 안에 여러 번 반복된다.

- 약 1: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약 2:1 내 형제들아 ...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약 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약 2:14 내 형제들아 ...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약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약 3: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뇨
 약 4: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약 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약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약 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약 5:20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고보 사도가 남성 신도들에게만 그의 편지를 읽게 한 것일까? 야고보 사도는 여성 신도들은 상대도 하지 않은 것일까? 여성 신도들을 고려하였다면, 그는 수신자들을 부를 때 당연히 “형제자매들이여”라고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지금도 우리말에서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형제”나 “자매”라는 말을 호격(呼格)으로, 호칭(呼稱)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 형제 사이에서 아우가 형을 부를 때에는 “형!”이라고 하든가 “형님!”이라 하고, 자매 사이에서도 아우가 형을 부를 때에는 “형님!” 혹은 “언니!”라고 한다. 형이나 언니가 아우를 부를 때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례이다. “형제야!” “자매야!”라는 호격은 우리말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뒤부터, 교인들 사이에서는 성서에서 쓰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호격을 서서히 따라서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하고 부른다. 남자 신도들을 부를 때에는 “아무개 형제”라고 하고, 여자 신도들을 부를 때에는 “아무개 자매”라고 한다.

본래, 우리말에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同氣)나 동근(同根)을 일컫는다. 여자끼리 동기는 따로 “자매”라고 일컫는다. 일반 사전에는 형제와 자매를 동시에 일컫는 연지(連枝)의 뜻으로 “형제자매”를 한 낱말의 표제어로 실고 있기도 하다.

“형제”나 “자매”라는 말이 호격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형제”나 “자매”나 “형제 자매”를 호격으로 쓸 때에는 그 용법이 좀 복잡하다. 한 개인을 부를 때에는 특별한 호격 어미가 필요 없다. 예배 때에 “아무개 형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자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남자 교인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에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여서, “형제” 다음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의 존칭을 붙여야 어색하지 않다. 이것은 “자매 여러분”에도 함께 적용되고, 남녀를 다 포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도 적용된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에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히브리어 “악호”(אָח, 630회)와 그리스어 “아델포스”(adelphos, 343회)의 우리말 번역이다. 문자적 의미로는 이 두 낱말의 우리말 대응어가 “형제”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악호”와 그리스어 “아델포스”와 우리말 “형제”는 각기 자체의 언어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의미영역(意味領域 semantic domain) 혹은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이 제각기 다르고 각 낱말의 뜻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고정 대응 낱말로만 번역한다면,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켈러(L. Köehler)-바움가르트(W. Baumgartner)의 “악호(אָח)” 의미 분류기

- (1)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동부모(同父母) 사이의 남자 형제.
- (2) 양쪽 부모 가운데에서 한 쪽만이 같은, 이부모(異父母)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형제(창 37:4; 삼하 13:4).
- (3) 남자 사이의 혈연관계(창 9:25; 14:16; 16:12; 25:18).
- (4) 혈연관계가 없는 남자 사이의 의형제(삼하 1:26; 느 5:10).
- (5) 남녀를 다 포함하는 종족(창 31:32; 삿 9:18; 삼하 19:13).
- (6) 남녀를 다 포함하는 민족(출 2:11; 레 19:17).
- (7) 남녀를 다 포함하는 같은 소속의 일원(욥 30:29; 창 26:31).
- (8) 모르는 남자들에게 예의의 표시로서 부르는 형식적 칭호(창 29:4).
- (9) 공개적이거나 공식적인 직무상의 교제에서 남자들끼리 자신이나 상대를

7) Ludwig Köehler, Walter Baumgartner, and Johann Jakob Stam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67), 28.

일컫는 칭호(렘 22:18). (10) 남자 이름의 한 구성 요소(아히멜렉, 삼상 21:2-23:6; 아히감, 왕하 22:12-14).

로-나이다의 “아델포스(ἀδελφός)” 의미 분류⁸⁾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 형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마 4:18). 여기에 형과 아우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셈어의 일반적 용법에 따르면, 형이 먼저 언급되고 아우가 다음에 언급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몬과 그의 아우 안드레”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신도”나 “교우”. 신약성경 안에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fellow believers).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 3:1)고 할 때에, 이 의미 가지에서 사용되는 남성 명사 “아델포스”는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한다. 즉 우리말로 “형제 자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사회-종교적 실재에 속한 사람, 곧 동료 유대인(fellow Jesus). “부형들아(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행 22:1)에서, “아델포이”는 남녀를 다 포함하는 동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4)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 곧 “동포”(fellow countryman).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행 2:29)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아델포이”는 “동포 여러분”을 뜻한다. (5) “이웃”(neighbor).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눅 6:41) 등에 나오는 “형제”는 혈연상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geitoom*, *perioikos*, *pleesion* 등과 같은 의미장(意味場)에 속하는 말이다. *pleesion*이 넓은 의미의 “이웃”이나 “친구”라면, *adelphos*는 친밀성이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우리말의 “형제”⁹⁾

(1) 형과 아우, 곧 곤계(昆季), 곤제(昆弟), 동근(同根), (2) 동기(同氣), (3) 천주교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한 자손이란 뜻으로 일컫는 말, (4) 천주교에서 평교인 사이에, 또는 나이가 아래인 남자 교우를 부를 때 쓰는 말

이상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안에서 “형제”란

8) Johannes P. Louw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1, 10.49, 11.23, 11.25, 11.57, 11.89.
9)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서울: 어문각, 1991). 우리말 사전들은 “형제”의 의미 변천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석하지 아니한다. 최근에 나온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이 “형제”의 뜻을 넷으로 갈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말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까지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개신교와 천주교 구별이 없이 신도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형제”는 남성 사이에 쓰이고, “자매”는 여성에게 쓰인다는 점이다. 이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리스어 “아델포스”는, 혈연관계의 형제를 말하는 것 말고 나머지 네 의미 가지에서 복수로 쓰일 때에는 거의 다 남녀를 포함한다.¹⁰⁾ 바우어의 『신약 그리스어 사전』도, 율리피데스(B.C.5세기), 안도씨테드(B.C.4세기), 안토니우스(A.D.2세기), 디오게네스(A.D.3세기) 등의 글에서 “아델포이”가 “형제 자매”를 뜻한다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¹¹⁾

리들(H. G. Liddell)-스캇(R. Scott)의 아델포스(ἀδελφός) 의미 분류¹²⁾

(1) 형제 (2) 친척 (3) 동료 (4) 왕이 백성을 부르는 호칭 (5) 교우(a fellow christian) (6) 친구, 이웃

여기에서도 혈연의 형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아델포스”가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의 경우는 그리스어 “아델포스”를 거의 고정적으로 “형제,” “형,” “오라비” 등으로 번역하고, 간혹 “동족”과 “동무”로 번역하였다.

신약성서의 편지 글, 곧 서신에 나오는, “신도”를 의미하는 호칭 “아델포이”를 “형제 자매”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1) 원문에 “아델포이”(형제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매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2) 원문에 한 낱말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말로는 두 낱말로 번역하느냐고 문제를 삼기도 한다. (3) “아델포이”가 문자적인 뜻으로는 남성 “형제들”이지만, 그것이 내포한 뜻은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것이므로, 우리말에서도 “형제들”이라고 번역하여 놓고, 그것이 여성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설명 과정에서 밝혀지도록 두자는 의견도 있다. (4) “아델포이”가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는 그대로 “아델포이”를 직역하여 “형제들”이라고 하고, 난외주에 남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기록하자는 의견도

10) 참조, Johannes P. Louw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2, 10.49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the plural of *adelphos* (namely *adelphoi*) can mean both “brothers and sisters”...”

11)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15; Wilbur Gingrich, ed., *Shorter Lexic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Fredrick W. Danker,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4; G. W. 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1), 30.

12) Henry George Liddell and Robert Scott, comp.,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8), 20.

있다. (5) 이것과는 반대로, 『영어새표준개역』(NRSV)처럼 본문 안에 “형제와 자매”를 넣고, 난외주에 그리스어 본문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음을 밝히자는 의견도 있다. (6) “아델포이”가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라고 함으로써, “아델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매”의 뜻을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7) 이것과 비슷한 이유로, 『개역』이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본문을 “작은 글씨”로 써서 넣었듯이 “형제 자매”라고 적되, “자매”를 작은 활자로 써넣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의견들은, 필자 자신이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의 면담 결과로 얻은 의견들이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나, 특히 여성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위의 (5)번 의견을 선호하는 경우가 단연코 많았다. 남성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형제자매 여러분!”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여성 신도들만 있는 곳에 가서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여러분!”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써 보낸 편지에서 신도들을 부르는 “아델포이”를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번역하는 데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는 성서 번역자들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남성들), 다른 낱말을 번역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우리말 대응 단어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쓰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아델포이”에 포함된 여성을 표면으로 들추어내어 표현하는 것에는 인색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이념이나 한 시대의 “운동”을 성경 번역에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직 가부장제적 문화권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려는 집착을 보이는 남성들도 있다. 그러나 남녀 신도를 다 포함하는 “아델포이”를 “형제자매”로 번역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차별 표현의 극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바우어의 “아델포스(ἀδελφός)” 의미 분류

- (1) “형제”, 복수일 때는 “형제와 자매”(brother, pl. brothers and sisters), (2) 예수에게 헌신한 이들(one who is devoted to Jesus), (3) 동족(fellow countryman), (4) 이웃(neighbor), (5) 왕이 고위 관직자를 부르는 칭호(form of address used by a king to persons in very high position)

로와 나이다의 의미 영역에 근거한 그리스어 사전이 “아델포스”를 “친족 용어”(kinship terms) 의미 영역과 “어떤 단체나 계급의 소속원”(groups and classes of persons and members of such groups and classes)이라고 하는 의미 영역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듯이¹³⁾, 이것은 의미론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사전에 나온 의미 분류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말 대응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번역 이론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잘못됨이 없다. 원천 언어의 한 단어가 수용 언어에서도 꼭 하나의 대응 단어만 가져야 한다는 고집은 상식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사전이 제각기 여러 가지 주석(낱말 해석)을 보여주듯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전들도 의미의 가짓수와 변천의 역사를 상세히 보여 주기 때문에, 번역 대응어 결정 과정에서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악흐”와 그리스어 “아텔포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악흐”와 “아텔포스”가 지닌 다양한 의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말 대응 단어도 다양하게 선택하여야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 여성 표현의 부정적 활용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사람 일반을 규탄하는 사도들의 설교나 예언자의 신탁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문법상 여성형으로 그리고 수사법상 여성형으로 묘사하고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위에서 언급한 야고보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 말미에서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역』 약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ASV Jam 4:4 *Ye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soever therefore would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th himself an enemy of God.

NAS Jam 4:4 *You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NAU Jam 4:4 *You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DBY Jam 4:4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13) Johannes P. Louw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1, xxiv, 118, 125-135.

God? Whoever therefore is minded to be {the} friend of the world is constituted enemy of God.

야고보가 그의 청중을 바꾼 것일까? 그가 여성들만 모인 곳에서 여성 신도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주석은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간음이라고 한 것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던 표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간음한 신부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배신한 사람을 가리켜 “간음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보면 기막힐 노릇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들 중에서 제외시켜야 할 남성을 표현할 때 그 문학적 기교로 혹은 수사법으로 그 대상을 여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래적인 의미를 따라 번역한다면, 이 구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가 아니라 “간음하는 자들이여”이다.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의 새로운 번역들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JV Jam 4:4 *Y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s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NIV Jam 4:4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NIB Jam 4:4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s God?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RSV Jam 4:4 *Unfaithful creatur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NRS Jam 4:4 *Adulterer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NKJ Jam 4:4 *Adulterers and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refore want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WEB Jam 4:4 *Y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DRA Jam 4:4 **Adulterers**, know you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is world is the enemy of God? Whos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is world becometh an enemy of God.

RWB Jam 4:4 **Y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BBE Jam 4:4 *O you who are false to God*, do you not see that the friends of this world are not God's friends? Every man desiring to be a friend of this world makes himself a hater of God.

YLT Jam 4:4 *Adulterers and adulteresses!* have ye not known that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n, may counsel to be a friend of the world, an enemy of God he is set.

NAB Jam 4:4 *Adulterers!* Do you not know that to be a lover of the world mean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ants to be a lover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NLT Jam 4:4 *You adulterers!* Don't you realize that friendship with this world makes you an enemy of God? I say it again, that if your aim is to enjoy this world, you can't be a friend of God.

NJB Jam 4:4 *Adulterers!* Do you not realise that love for the world is hatred for God? Anyone who chooses the world for a friend is constituted an enemy of God.

2) “창녀 예루살렘, 그 어미에 그 딸”

신을 배신한 인간을 “음녀(淫女)”나 “창녀(娼女)” 등, 여성으로 표현한 것 역시 성차별 표현으로 분류된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그 유명한 속담도 좋은 의미로 쓰지 않고 음녀 어머니에게서 음녀 딸이 나온다는 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에스겔서 16장의 비유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표준』 겔 16:15-16

15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16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표준』 겔 16:24-26

24 너는, 길거리마다 네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네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25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네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26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 나라 남자와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표준』 겔 16:30-34

30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31 네가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 놓고, 몸을 팔면서도, 네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32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33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 가며 사방에서 불려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34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몸값을 주어 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표준』 겔 16:44-47

44 “사람들이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45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네 어머니의 딸이며, 네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하던 네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헛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46 그리고 네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네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47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 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네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2.3. 신(神)의 남성형 표현

이것은 주로 인칭대명사에 문법적인 성의 구별이 있는 인도 유럽 언어권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창세기 1장 27절을 글자를 따라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는 그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는 그들을 창조하셨다.”

영어 번역을 예로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KJV Gen 1: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KJV에서는 “하나님(God)”이 대명사로 언급될 때는 인칭대명사 남성 삼인칭

단수인 *his, he*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차별 표현을 없애보려고 한 NRSV에서도 이런 문제는 극복되지 못한다.

NRSV Gen 1:27 *So God created humankind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lit.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NRSV가 한 것이라고는 다만 남녀가 다 포함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him*”을 피하고 남녀 공통의 인칭대명사 3인칭 복수 “*them*”을 썼다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음의 여러 번역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가 없었고, 아직은 없다.

『개역』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공동』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표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개역개정』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위의 우리말 번역 인용에서 보듯이, 우리말 번역은 선행(先行)하는 “하나님”을 다음에서 인칭대명사로 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인칭대명사의 활용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런 대화가 있다.

“엄마 집에 계시니?”

“네, 계세요”

(혹은 “네, 엄마 집에 계세요.”)

앞으로 이런 대화가 있을까?

“엄마 집에 계시니?”

“네, 그녀 집에 계세요.”

아직은 한 문장 안에서 주어가 실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반복될 때 우리말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생략하거나, 반복할 경우는 실명사를 반복한다. 다음의 『표준 새번역』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문자대로는 “그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4. 여성 참여 제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 하나는, 여성에게 발언권을 제한하고 복종만을 강요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의 여러 곳에 나오는 세계(世系)나 계보(系譜)가 남
성 위주로 기록되고 여성은 빠지거나 종속적으로만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다.

1) 여성의 발언 제한과 복종 강요

교회 안에서 여성의 발언을 제한하고 복종을 강요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
도전서 14장 34-35절일 것이다. 짧은 두 절 안에,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
함이 없나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다만 “복종하라”고 하
여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의 발언을 철저히 봉쇄 당하고 있다.

『개역』 고전 14: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공동』 고전 14:34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할 권리가 없으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도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35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어 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
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치가 됩니다.

『표준』 고전 14:34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
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35 배우
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역개정』 고전 14: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
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KJV 1Co 14:34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for it is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 but they are commanded to be under obedience, as also saith
the law. 35 And if they will learn any thing, let them ask their husbands at
home: for it is a shame for women to speak in the church.

NIV 1Co 14:34 women should remain silent in the churches. They are not allowed to speak, but must be in submission, as the Law says. 35 If they want to inquire about something, they should ask their own husbands at home; for it is disgraceful for a woman to speak in the church.

TEV 1Co 14:34 the women should keep quiet in the meetings. They are not allowed to speak; as the Jewish Law says, they must not be in charge. 35 If they want to find out about something, they should ask their husbands at home. It is a disgraceful thing for a woman to speak in a church meeting.

이런 번역과는 달리 『인클루시브 신약』¹⁴⁾은 같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고전 14:34-35

34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holy ones, only one spouse has permission to speak. The other is to remain silent, to keep in the background, as it says in the Law. 35 If the silent one has questions to ask, ask them at home. It is disgraceful for a spouse to speak improperly in church. (34 성도들이 모인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러하듯이, 오직 한 배우자(配偶者)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말한 바와 같이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35 말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집에 가서 물으십시오. 배우자가 교회 안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말을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자들(women)”이란 말 대신에 남녀를 다 포함하는 “배우자(spouse)”라는 말을 썼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부부의 경우는 오직 “한” 배우자만 발언이 허용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들에게 강요된 “복종하라”는 말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쪽이 “앞에 나서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로 대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성을 멸시하거나 제외시킨다는 인상이 없다.

2) 예수의 세계(世系)(눅 3:23-38)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계보 역시 남성과 장자 중심이지만 몇몇 곳에 여성 이름과 차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세계(世系)와는 다르다. 그러나, 여성이 언급된 경우는 그 여성이 정상적 결혼 관계가 아니거나 상식적인 출산이 아닐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개역』 마태복음서 1장 1-17절의 번역을 인용한다.

14) *The Inclusive New Testament* (Brentwood, MD.: Priests For Equality, 1996).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2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밑줄 친 이름은 여성의 이름들이다. 이들 여성들의 이름은 정식으로 부부 관계가 아닌 데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혹은 후에 재혼한 경우에 여성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성차별의 각도에서 보기보다는 이 계보의 신학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인클루시브 신약성서』는 그리스어 본문에 적힌 여성들의 이름 외에 중요한 모계를 성서의 다른 문맥에서 찾아서 삼입시키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성서의 다른 문맥에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계를 완전하게 재구성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절)라고 하는 것이 『인클루시브』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밧세바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기록”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2절)”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을 낳고 레아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번역하였다. 양친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계를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부계를 언급한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

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17절)가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사라와 아브라함부터 밧세바와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밧세바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고 번역하였다.

마태복음서 1장 1-17절의 번역을 『인클루시브 신약』에서 인용해 본다. 아래 인용문에서 진한 글자로 쓴 것은 번역자의 첨가이고, 밑줄을 그은 곳은 본문에 부계와 모계가 언급된 곳이다. 성서 자체 안에서 양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첨가하였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성들의 이름만으로 세계(世系)를 밝혔다.

1. This is the family record of Jesus Christ, descendant of **Bathsheba and David**, descendant of **Sarah and Abraham**: 2. **Sarah and Abraham** begot Isaac; **Rebecca and Isaac** begot Jacob; **Leah and Jacob** begot Judah and his sisters brothers; 3. **Tamar and Judah** begot Perez and Zerah; Perez begot Hezron; Hezron begot Ram; 4. Ram begot Amminadab; Amminadab begot Nahshon; Nahshon begot Salmon; 5. **Rahab and Salmon** begot Boaz; **Ruth and Boaz** begot Obed; Obed begot Jesse; 6. and Jesse begot David, the ruler. **Bathsheba-who had been** the wife of Uriah-and David begot Solomon; 7. Solomon begot Rehoboam; Rehoboam begot Abijah; Abijah begot Asa; 8. Asa begot Jehoshaphat; Jehoshaphat begot Joram; Joram begot Uzziah; 9. Uzziah begot Jotham; Jotham begot Ahaz; Ahaz begot Hezekiah; 10. Hezekiah begot Manasseh; Manasseh begot Amon; Amon begot Josiah; 11. Josiah begot Jeconiah and his sisters and brothers at the time of the Babylonian captivity. 12.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Jeconiah begot Shealtiel; Shealtiel begot Zerubbabel; 13. Zerubbabel begot Abiud; Abiud begot Eliakim; Eliakim begot Azor; 14. Azor begot Zadok; Zadok begot Achim; Achim begot Eliud; Eliud begot Eleazar; Eleazar begot Matthan, Matthan begot Jacob; 16. Jacob begot Joseph, the husband of Mary. And from her Jesus was born. 17. Thus there were fourteen generations from **Sarah and Abraham** to **Bathsheba and David**, fourteen generations from **Bathsheba and David** to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fourteen generations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to the Messiah.

2.5.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의 차별 표현

남자는 “사람”이라 하고, 여자는 “여자”라고 하여 사람과 여자를 대비시키는 것은 마치 여자는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을 오도한다. 아래 『개역』 인용에서 “사람”은 원문에서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 『개역』 출 2:1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¹⁵⁾
- 『개역』 출 22: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 『개역』 신 21: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 『개역』 신 22: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 『개역』 신 22:30 **사람**이 그 아버지의 후실을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 『개역』 신 24: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 『개역』 신 24:2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 『개역』 신 24: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 『개역』 신 25: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 『개역』 신 28:30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 『개역』 막 10:7-8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몸이 될찌니라 이 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2.6.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존대법의 차별 적용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의 모압 과부 룯의 대화

보아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개역』 룯 2:8-9)

룯: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역』 룯 2:10)

보아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우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개역』 룯 2:11-12)

룯: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개역』 룯 2:13)

보아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개역』 룯 2:14)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로서 과부가 된 룯과의

15)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여자”가 한다.

대화를 『개역』의 번역으로 본 것이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역시 맞춤법만 바뀐 것 외에 남자가 여자에게 반말을 쓴 것은 『개역』과 같다. 『공동번역 성서』(1977)의 경우 역시 표현만 현대화되었을 뿐 남자가 여자에게 반말을 쓰고, 여자가 남자에게 존대말을 쓰는 것은 『개역』이나 『개역개정판』의 경우와 같다.

2.7. 여성 비하 표현

1) 원문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

원문에서 유래하는 것과 번역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가 있다. 원문에서 유래하는 것이란 여성을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공동』 잠언 19:13 아내가 바가지를 굶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공동』 잠언 21:9 바가지 굶는 아내와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공동』 잠언 21:19 바가지 굶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 사는 것이 낫다.

『공동』 잠언 25:24 바가지 굶는 아내와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공동』 잠언 27:15 아내가 바가지를 굶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공동』 전도 7:26 나는 또 여자란 죽음보다도 신물나는 것임을 알았다. 여자는 새 잡는 그물이다. 그 마음은 올라미요 그 팔은 사슬이다. 하느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잡히고 만다.

『표준』 전 7:28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 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 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동』 집회 9:1-9 1 사랑하는 아내를 질투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가 너를 해칠 생각을 품게 되리라. 2 그러나 아내에게 너무 빠지지도 말아라. 네가 오히려 밟힐지도 모른다. 3 창녀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그 여자의 홀림에 넘어갈까 두렵다. 4 기생집에 발길을 삼가라. 그 여자의 계략에 넘어갈까 두렵다. 5 처녀에게 눈을 팔지 말아라. 여자와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6 창녀들에게 네 마음을 주지 말아라. 네 재산을 잃을까 두렵다. 7 길거리에서 한눈을 팔지 말 것이요 구석진 골목에서 서성거리지도 말아라. 8 예쁜 여자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에 혹하지 말아라. 정욕이 불길처럼 타올라, 여자의 미모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많다. 9 유부녀와 자리를 같이하지 말고 또한 술 마실 기회도 갖지 말아라. 그 여자의 매력에 홀려 욕정이 멸망으로 치달을까 두렵다.

2) 번역 과정에서 유래하는 것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머니”와 “여자”를 “어미”와 “계집”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성서 원문이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자가 여성 일반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의 신분을 구분하여 이런 대응어를 선택하였다.

(1) “어미”

“어미”는 새끼를 가진 짐승의 암컷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역』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차별 언어로 분류되지 않는다.

- 『개역』 출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레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개역』 출 23:19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개역』 레 22: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칠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개역』 레 22:28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개역』 신 22:6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개역』 신 22: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실제로 우리의 언중 사이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어미”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 『개역』 사 5:7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개역』 잠 1:8 내 아들이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상대방의 어머니를 경멸하는 경우에는 어미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 『개역』 왕하 9: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나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나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어미”라고 한 경우는 존대의 표현이 아니다.

- 『개역』 욥 3:11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개역』 렘 20:14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개역』 렘 20:17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개역』 시 71:6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바 되었사오니

- 『개역』 아 1:6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 『개역』 아 3:4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 『개역』 아 8:1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 『개역』 아 8: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 『개역』 사 49:1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 『개역』 애 5:3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어미”라고 하는 것은 존대의 표현은 아니다.

- 『개역』 창 24: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 『개역』 창 30:14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 『개역』 삿 5:28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 『개역』 삿 9: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겔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 『개역』 삿 17:3 미가가 은 일천 일백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 『개역』 왕상 17: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 『개역』 아 6:9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 『개역』 겔 16:44 **어미**가 어찌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 『개역』 마 20: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 『개역』 눅 7:12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 『개역』 눅 7:15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 『개역』 딤후 5:2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2) 계집

우리말 사전이 정의한 대로는 “계집”이란 “여자”를 일컫는 속어에 속한다. 『개역』에서는 주로 여자 종을 일컫는 경우에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 『개역』 출 23:12 제 칠일에는 쉬라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 『개역』 삼하 6:20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 『개역』 삼하 6:22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 『개역』 삼하 17:17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 『개역』 잠 30:23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성 자신이 천사나 왕과 같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계집종’이라고 한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 쉬프하테카(שִׁפְחָתָא)와 그리스어 도울레(δούλη)를 “...의 계집종”이라고 번역하였다.

- 『개역』 삼하 14:7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꺾박하여 말하기를
- 『개역』 삼하 14:12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 『개역』 삼하 14:15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면 혹시
- 『개역』 삼하 14:17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 『개역』 삼하 14:19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 『개역』 왕상 1:13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 『개역』 왕상 3:20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 『개역』 왕하 4:2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
- 『개역』 왕하 4:16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 『개역』 욥 19:15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 『개역』 눅 1: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 『개역』 눅 1:48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 『개역』 갈 4:22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 『개역』 갈 4: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 『개역』 갈 4:30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 『개역』 갈 4:30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 『개역』 갈 4:31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일반적으로 “여자”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 혹은 여성 삼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동사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하여)를 자주 “계집”이라고 번역한 경우를 볼 수 있다.

- 『개역』 왕상 3:22 다른 계집(שִׁפְחָתָא: 여자)은 이르되
- 『개역』 왕상 3:22 이 계집(שִׁפְחָתָא: 이 여자)은 이르되
- 『개역』 왕상 3: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되는 계집(שִׁפְחָתָא: 여자)이 그 아들을 위하여
- 『개역』 왕상 3:26 한 계집은 말하기를(שִׁפְחָתָא: 그 여자가 말하기를)
- 『개역』 왕상 3:27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שִׁפְחָתָא: 그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 『개역』 왕하 5:2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שִׁפְחָתָא: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 『개역』 왕하 5:4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שִׁפְחָתָא: 그 소녀)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
- 『개역』 왕하 9:34 이 저주 받은 계집(שִׁפְחָתָא: 저주받은 여인)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 『개역』 잠 2: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הַאִשָּׁה: 여자)에게서 구원하리니
- 『개역』 잠 5:20 내 아들이야 ... 어찌하여 이방 계집(בְּזֵרָה: 음녀)의 가슴을 안겠느냐
- 『개역』 잠 6: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עַל הַאִשָּׁה מְאֹדָּה: 부도덕한 여자에게)
- 『개역』 잠 6:24 이방 계집(בְּזֵרָה: 자유분방한 여자)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 『개역』 잠 6:26 음란한 계집(הַאִשָּׁה הַזֹּנֵה: 매춘 여성)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 『개역』 잠 7:5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עַל הַאִשָּׁה הַזֹּרָה: 음행하는 여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 『개역』 잠 7: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הַאִשָּׁה: 여자)이 그를 맞으니
- 『개역』 잠 7:11 이 계집(הִיא: 그)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 『개역』 잠 7:13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בָּהֶחֱזִיקָהּ: 그가[女] 여자가 그[男]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 『개역』 잠 9:13 미련한 계집이(הַאִשָּׁה הַכְּסִילוֹתָה: 어리석은 여자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 『개역』 잠 30:23 꺼림을 받는 계집이(הַאִשָּׁה הַשֹּׂנְאָה: 사랑 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 『개역』 행 12:13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παυδίσσακη: 여종)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 『개역』 행 12:15 계집아이(η: 관계대명사 “그”)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 『개역』 삼상 20:30 패역부도(悖逆不道)의 계집(נְעוּת הַמְּרֻרָה: 반항적이고 괴팍한 여자)의 소생아
- 『개역』 삼하 13:17 이 계집(זֹאת: 이 여자)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 『개역』 왕상 3:16 때에 창기(娼妓) 두 계집(שְׁתֵּי נָשִׁים זֹנוֹת: 두 창녀)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 『개역』 왕상 3:17 한 계집(הַאִשָּׁה הָאֶחָת: 한 여자)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הַאִשָּׁה הַזֹּאת: 이 여자)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 『개역』 왕상 3:18 나의 해산한지 삼일에 이 계집(הַאִשָּׁה הַזֹּאת: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 『개역』 왕상 3:19 그런데 밤에 저 계집(הַאִשָּׁה הַזֹּאת: 이 여자)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2.8. 원문 이해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이데올로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 본문을 여성 예속적으로 이해하거나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여성을 보는 남성의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 주체적인 여성을 남성이 바라는 여성으로 이해한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소위 “현숙(賢淑)한 여성”

잠언 31장 10-31은 이상적인 여인상을 그린 것이다. 이상적 여인을 묘사하는 히브리어는 “에셋 하일”(עֵשֶׂת חַיִל)이다. 이 말은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현숙한 여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먼저 이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개역』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10 누가 현숙(賢淑)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11 그런 자의 아내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産業)이 핏질(乏絶)치 아니하겠으며 (『개역』 잠 31:10-11)

남편이 아내를 “현숙(賢淑)하다”는 말로 미화시켜놓고 온갖 어려운 일을 아내에게 다 시킨다. 여기 현숙하다고 묘사된 여성은 노예(奴隸)처럼 일만 한다.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 자기의 무역(貿易)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商賈)에게 맡기며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위층과 더불어 유유자적(悠悠自適)을 즐긴다.

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城門)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위의 본문에서 여기 이 아내가 하는 일을 차라리 남편이 하는 일로 바꾸어 읽으면 더욱더 실감이 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아내에 대한 묘사이기 보다는 남편에 대한 묘사로서 더 적절하다.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고(商賈)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糧食)을 가져오며

16 밭을 간품(看品)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중동 지역의 아랍 농민이나 베두인족 같은 유목민들이 사는 것을 보면, 일은 여성들과 아이들만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아마 아랍인들 중에서는 필자의 이런 관찰이 피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마도 옛 산업사회 이후 후기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를 제외하면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일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했던 것 같다.

우리의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일을 여자가 한다. 도대체 남자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양(羊)털과 삼(杉)을 구해온다

손을 부지런히 놀려 천을 만든다

가내수공업(家內手工業)을 맡는다 (13절)

상고(商賈)의 배처럼

먼 곳까지 가서 양식(糧食)을 사온다 (14절)

밤이 미처 새기 전에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한 편으로는

식구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함께 같이 일어난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15절)

밭을 간품(看品)하여 사며

이익금을 가지고는 포도원(葡萄園)을 가꾼다 (16절)

허리의 힘이 강하여 중노동에도 끄덕하지 않고

무거운 것도 척척 들어 옮길 만큼 팔의 힘도 강하다 (17절)

무역(貿易)이 호황(好況)을 이루고 이익이 증가할 때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다 (18절)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니
길쌈을 쉬지 않는다 (19절)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商賈)에게 맡긴다 (24절)

식구들에게 고급 옷, 곧 홍색(紅色) 옷을 지어 입히니
식구들은 한겨울이 되어도 추위걱정 안 한다 (21절)

이렇듯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27절)

그는 베푸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다
간곤(艱困)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窮乏)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20절)

문화권(文化圈)에 따라서는, 일은 여성에게만 시키고, 남자는 놀고 먹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구절로, 우리의 본문이 오용(誤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본문을 정독(精讀)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착안하게 된다. 첫째는 도입 부분(잠 31:10-12)이 본론(잠 31:13-27)이나 결론(잠 31:28-31)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본론과 결론에 묘사된 여인은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성품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입 부분은, 이어지는 본론이나 결론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좋은 아내를 만난다는 것을 값으로 친다면 값비싼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다.

- 10 누가 현숙(賢淑)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產業)이 핍절(乏絶)치 아니하겠으며
-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2) 흑색 미인을 백색 미인으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 혹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로 다른 뜻으로 읽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뜻을 읽어내려 한다. 원문 자체가 이미 다양한 이해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서 번역은 의미의 의도적인 차별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가 1장 5절이다. 거기에 보면, 한 처녀가 자신의 외모를 묘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기가 예쁘게 생겼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독자들로서는 그 여성이 한 말의 진의를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검지만 예쁘다(I am black *but* beautiful),” 혹은 “나는 검어서 예쁘다(I am black *and* beautiful)”처럼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인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흑색은 추한 것을 묘사하는 말이고, 백색은 미인을 뜻하는 말이라고 세뇌를 당했을 것이다. “백색 미인”이라는 화장품 선전의 문구도 바로 이런 흑인들과 황색인종을 노리는 상술일 것이다. 백색 문화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읽는 이들은 단연코, “나는 검지만 예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3) 부부의 상호복종을 여성만의 복종으로

(1)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1절의 소속 문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라는 말이 현재의 『개역』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문단(15-21절)의 마감 구절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22절 이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새로운 문단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22절 이하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결혼 예식문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을 요구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표적인 그리스어 신약의 비평적 편집본인 네스틀레-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전서』¹⁶⁾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전서』¹⁷⁾는 21절을 한 문단의 마감 구절로 편집하지 않고 새로 시작되는 새 문단을 여는 시작 구절로 편집하였다. 이것은 본문 이해에 커다란 변화를

16) *Novum Testamentum Graece*, Barbara Aland et al., eds.,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17) *The Greek New Testament*, Kurt Aland et al., eds.,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ion for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Muenster/Westphalia, 4th ed. (Stuttgart, Germany: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y, 1994).

가져온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개역』 엡 5:15-21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개역』 엡 5:22-25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 에베소서 5장 22절의 본문비평

에베소서 5장 21절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새로운 문단의 첫 문장으로 들어와서 남녀간에 서로 복종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22절이 고대 사본에서는 여성의 복종을 말하는 본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아내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를 지극히 아끼고 있다는 점에도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번역판들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번역하지만, 고대사본은 다만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하십시오”라고만 되어 있다. “복종하라”는 말을 아끼고 있다. 완전 문장이 아니다. 무슨 속기록이나 전문 같다. *αἱ γυναῖκες τοῖς ἰδίοις ἀνδράσι* ὡς τῷ κυρίῳ “아내들이여, 자기들의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처럼”이라고 되어 있다. 기원후 200년경의 파피루스 사본인 P46(Dublin; Ann Arbor, Mich.)을 위시하여,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B)(Rome: Vaticanus) 등이 이런 본문을 보인다. “복종하라(ὑποτάσσεσθε)”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6세기의 서신사본 D(Paris: Claromontanus), 역시 9세기의 서신사본 F(Cambridge), 역시 9세기의 서신사본 G(Dresden) 등이다. 이처럼 원문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본들은 여기에 “복종하라”

는 말을 첨가시켜 넣고, 번역들 가운데 많은 번역들이 이 후대 사본을 따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는 본문을 삽입하였다.

3. 『표준새번역』에서 한 것과 못한 것

3.1. 문법상의 남성형 표현을 없앴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남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면서도 문법상으로는 남성에게 쓰는 표현을 써서 여성을 거기에 끼워서 넣는 경우, 『표준새번역』은 이 둘을 다 밝히 나타내는 표현을 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어 “바님(בָּנִים 아들들)”이나 그리스어 “휘오이(υἱοί 아들)”를 번역함에 있어서 “아들(들)”이라는 고정번역(固定翻譯 stereotyped translation)을 피하고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 범주를 고려하여 “자녀” “아이들” “아들 딸” “신도들” 등으로 번역하였다.

- 『표준』 마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 『표준』 마 5: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 『표준』 롬 8: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표준』 롬 9: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 『표준』 엠 1: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 『표준』 히 12:5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 『표준』 히 12:5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 『표준』 히 12:6 주께서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특히 잠언에 자주 나오는 “브니(בְּנֵי: 나의 아들아)”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여 “아이들아”라고 번역하였다.

- 『표준』 잠 1:8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 『표준』 잠 1:10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 『표준』 잠 1:15 **아이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히브리어 “악힘(אָחִים: 형제들)”와 그리스어 “아델포이(ἀδελφοί: 형제들)”를 번역함에 있어서도 “형제들”이라고 하는 고정번역을 피하고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라고 번역하였다.

- 『표준』 수 2:13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 『표준』 대하 28:11 바로 그대들의 **형제자매**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 『표준』 느 4:14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 『표준』 시 133:1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 『표준』 마 5:47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 『표준』 마 25:40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 『표준』 행 1:16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
- 『표준』 롬 1:13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표준』 고전 1:10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 『표준』 고후 1: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 『표준』 갈 1:1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 『표준』 빌 1:12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 『표준』 골 1:2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 『표준』 살전 1:4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 『표준』 살후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 『표준』 딤후 4:6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 『표준』 딤후 4:21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 『표준』 히 2:11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 습니다
- 『표준』 약 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 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 『표준』 벧전 5:9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 『표준』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3.2.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을 없앴다

남녀를 다 포함하는 말일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성 언중에게 유쾌(愉快) 하지 않은 말일 때는 문법상 여성형을 써서 남자를 슬며시 가리고, 마치 그 말이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표현해 버리는 수사법(修辭法)은 평등 표현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잘못을 묘사할 때 여성 관련 언어를 쓰는 것이라든가, 신을 향한 인간의 배신이나 반역을 말할 때 간통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일반적으로 여성 쪽에서 저지르는 간통이라고 보고, 그러한 배신의 주체를 “음녀(淫女)”라고 표현하는 것 등은 구약성서의 경우 보편화되어 있고, 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어서 쉽게 고칠 수가 없었다.

- 『개역』 약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

나님과 원수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은 본문이 『표준새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표준』 약 4:4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3.3. 신(神)의 남성형 표현을 제한하였다

남녀의 성을 초월하는 신(神)을 묘사할 때 남성형 인칭대명사로 표현하여 은연중 신이 남성이라는 생각, 남자는 신성과 가깝다는 생각을 주입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말의 경우는 서구의 인도-유럽언어 계통에 비해 그러한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에서 “아버지”를 쓴 것이 주기도(主祈禱) 번역에 한 번 나온다. 이것은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나이다.”(마 6:13)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녀”가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라고 번역하였다.

3.4. 여성 참여를 제한하는 본문은 그대로 번역하였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이, 족보(族譜)나 계보(系譜)에서 부모를 언급함에 있어서 모계를 생략하거나 삭제하고 부계만 언급하는 것도 성차별 표현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어진 본문을 번역하는 번역 본래의 전통과, 본문의 자료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번역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으므로 이런 일은 일반적인 성서번역에서는 삼갈 수밖에 없었다.

3.5. 남녀의 차별 표현을 없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등장할 때, 남자를 가리키는 말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을 달리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남녀를 구별할 뿐 아니라, 남자에게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나 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여자에게는 꼭 여성임을 밝히는 구체적인 개념과 비하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평등하게 고쳤다. 이것은 원문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의 왜곡 현상이었으므로 쉽게 고칠 수

가 있었다. 『개역』의 “사람”이 『표준새번역』에서는 “남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사람”과 “여자”가 등장하지만 『표준새번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등장한다.

- 『표준』 출 2:1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표준』 출 22:16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피어서
 『표준』 신 21:15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표준』 신 22:16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표준』 신 24:2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표준』 신 25:11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표준』 신 28:30 너희가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3.6. 존대법을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였다

남녀간의 대화에서 남녀 관계를 여전히 수직의 상하관계로 본 개화기의 번역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존대말을 쓰고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쓰게 하였는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존대법이 없으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녀간에 존대법의 화계(話階)를 평등하게 조정하였다.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모압 과부 룯의 대화(룯기 2장)

보아스: “여보시오, 새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깥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룯: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옛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룻: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보아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보아스는 재산이나 권력에 있어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 마을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여기에 반해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젊은 날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과부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우리말 번역사의 초창기 아직 봉건사회(封建社會)를 못 벗어났던 때에 번역자들에게는 존대법의 화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큰 어른으로 보고, 룻은 아랫것 정도로 보아 신분이 높은 남자는 이방인 청상에게 반말을 쓰고, 룻은 동네 어른에게 극존대의 존대말을 썼을 것으로 가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士師)시대는 “해방된 이스라엘(liberated Israel)” 시대로서 이집트의 전제군주제와 가나안의 봉건영주제도에 항거하고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때였다.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귀한 가치로 여기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룻기』인 만큼 봉건주의의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의 틀에서 이해하고 남녀간 대화에서도 평등한 화계를 가지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7. 여성 비하 표현을 없앴다

원문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은 그대로 번역하였지만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여성 등장 인물에 대하여 여성을 비하(卑下)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빈번했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잡혔다.

1) “어미”를 “어머니”로 고쳤다

자기 어머니

- 『표준』 욥 3:11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표준』 시 71:6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표준』 아 3:4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표준』 아 3:4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표준』 아 8:1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표준』 아 8:2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들이고
 『표준』 아 8:2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표준』 사 49:1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 『표준』 렘 20:14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 『표준』 렘 20:17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 『표준』 애 5:3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

- 『표준』 창 24:53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 『표준』 창 30:14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 『표준』 샬 5: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 『표준』 아 6:9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 『표준』 겔 16:44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 『표준』 마 20:20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 『표준』 눅 7:12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 『표준』 눅 7:15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 『표준』 딤후 5:2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2) “계집”이란 말을 없앴다

- 『표준』 출 23:12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 『표준』 삼하 6:20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 『표준』 삼하 6:22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오
- 『표준』 삼하 17:17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 『표준』 잠 30:23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성 자신이 천사나 왕이나 예언자와 같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쉬퍽하테카(שפוקה)라고 하는 것을 『개역』은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번역하고, 그리스어 도울레(δούλη)는 “계집종”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표준새번역』에서는 이러한 저속한 겸양을 없앴다. “여종”이나 “종” 혹은 “저”(왕하 4:16) 같은 말로 대치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주어가 확실할 때는 반복되는 이런 표현을 아예 삭제해 버리기도 하였다(왕하 4:2).

- 『표준』 삼하 14:7 온 집안이 일어나서 이 종에게 ...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 『표준』 삼하 14:12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 『표준』 삼하 14:17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 『표준』 삼하 14:19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 『표준』 왕상 1:13 임금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 『표준』 왕상 3:20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 『표준』 욥 19:15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 『표준』 눅 1:38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 『표준』 눅 1:48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 『표준』 갈 4:22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 『표준』 갈 4:23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 『표준』 갈 4:30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 『표준』 갈 4:30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 『표준』 갈 4:31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역』이 “여자”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 혹은 여성 삼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동사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하여)를 “계집”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표준새번역』은 모두 “여자”로 혹은 “사람”으로 바꾸었다. 삭제하기도 하였다(왕상 3:26).

- 『표준』 왕상 3:22 그러자 다른 여자(הַאִשָּׁה)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 『표준』 왕상 3:22 먼저 말을 한 여자(אִשָּׁה)도 지지 않고…맞섰다
- 『표준』 왕상 3:26 다른 여자는…말하였다(הַאִשָּׁה: 그 여자가 말하기를)
- 『표준』 왕상 3:27 양보한 저 여자에게(הִיא: 그 여자에게) 주어라
- 『표준』 왕하 5:2 어린 소녀(נַעֲרָה)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 『표준』 왕하 5:4 온 한 소녀(הַנַּעֲרָה)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 『표준』 왕하 9:34 저 저주받은 여자(הַאִשָּׁה)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 주어라
- 『표준』 잠 2:16 너를 찢는 외간 여자(הַאִשָּׁה)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 『표준』 잠 5:20 어찌하여… 외간 여자(בְּיָדָהּ: 음녀)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 『표준』 잠 6:24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מֵאִשָּׁה רָעָה: 부도덕한 여자에게서) 지켜 주고
- 『표준』 잠 6:24 음행하는 여자(בְּיָדָהּ: 자유분방한 여자)가 호리는 말
- 『표준』 잠 6:26 음란한 여자(אִשָּׁה זֹנָה: 매춘 여성)는 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 『표준』 잠 7:5 외간 여자로부터(מֵאִשָּׁה זָרָה: 음행하는 여자에게) 지켜 줄 것이다.
- 『표준』 잠 7:10 한 여자(הַאִשָּׁה)가 창녀 옷을 입고서…그에게 다가갔다
- 『표준』 잠 7:11 그 여자(הִיא: 그)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 『표준』 잠 9:13 어리석은 여자(אִשָּׁה כְּסִילוֹת)는 수다스럽다
- 『표준』 잠 30:23 꺼림을 받는 여자(אִשָּׁה שֹׁנְאוֹת: 사랑 받지 못하는 여자가)가 시집을
- 『표준』 행 12:13 로데라는 어린 여종(παῖδίσκῃ)이 맞으러 나왔다
- 『표준』 행 12:15 여종(ἡ: 관계대명사 “그”)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 『표준』 삼하 13:17 이 여자(זֹאת: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 『표준』 왕상 3:16 하루는 창녀 두 사람(שְׁתֵּי נָשִׁים זָנוֹת: 두 창녀)이 왕에게 와서
- 『표준』 왕하 3:17 한 여자(הַאִשָּׁה הָאֶחָת)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 『표준』 왕상 3:18 저 여자(הַאִשָּׁה הַזֹּאת: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 『표준』 왕상 3:19 그런데 저 여자(הַאִשָּׁה הַזֹּאת: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3.8.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

1) “유능한 아내”

잠언 31장 10-31절에서, 그 동안 여러 번역이 히브리어 “하일(חַיִל)”을 “현숙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였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잠언 31장 10-31절에도 “현숙한 아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는 영어 번역들을 보면 제목을 “후덕(厚德)한 여인(The Virtuous Woman)”(RSV), “고귀한 성품을 지닌 아내(The Wife of Noble Character)”(NIV), “후덕(厚德)한 아내(A Virtuous Wife)”(NKJV)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요즘 새로 번역되는 번역들은 히브리어 “하일”을 여성의 성품이나 덕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여성을 “유능한 아내(A Capable Wife)”(GNB, NEB, TANAKH)라고 번역하고 있다. 중성적으로 “좋은 아내(a truly good wife)”(CEV)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우리의 본문은 여성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잠언 31장의 여성은 현숙한 여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능한 여성이다. 우리말에서 “현숙(賢淑)”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성의 성품 곧 여성으로서 마음씨가 어질고 얌전한 것, 정숙(貞淑)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의 성품만을 묘사하는 여성 전용 용어이다.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남자를 일컬어 현숙한 남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현숙함은 가부장문화에서 아내나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본론에 묘사된 것은 여성의 덕목이 아니고 그가 경영하는 가사와 산업이다.

여성이 지닌 이러한 생활 능력과 사업 능력은,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남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성차별을 합법화하는 기존의 시각을 반성하게 한다. 길쌈이나 식사 준비나 잡다한 가사는 여자가 하고, 바깥일이나 무역업 같은 사업은 남성이 한다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표준새번역』은 문제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누가 유능(有能)한 아내를 맞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표준』 잠 31:10)

2) “검어서 예쁘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가 1장 5절의 히브리어 “섹호라 아니 브나바(שְׂחֹרָה אֵינִי בְּנָבָא)”를 “내가 검지만 예쁘다”로 번역할 것인지, “내가 검어서 예쁘다”로 번역해야 할 것인지는, 히브리어 본문 자체나 문맥에서는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

황인종의 경우는 백색 미인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한 “검지만 예쁘다”고 읽으려 할 것이고, 각 인종이 저마다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 인종의 피부색깔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이들, 곧 자신의 타고난 피부 색깔에 긍지를 느끼는 이들은, “나는 검어서 예쁘다”라고 읽으려 할 것이다.

『표준새번역』 초판 역시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표준새번역』에서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라고 되어 있다.

3)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십시오”

최근의 대표적인 그리스어 신약의 비평적 편집본인 네스틀레-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전서』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전서』의 편집을 따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엡 5:21)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문단(15-20절)의 마감 구절에서 22절 이하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새로운 문단의 첫 구절로 옮겼다. 그리하여 교회가 전통적으로 결혼 예식문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을 요구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어 온 전통을 재고하게 하였다.

4) “주님께 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22절이 고대 사본에서는 여성의 복종을 말하는 본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표준새번역』이 22절 번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이해를 그대로 따라서 *αἱ γυναῖκες τοῖς ἰδίοις ἀνδράσιν ὡς τῷ κυρίῳ*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를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더 바람직하게는 그리스어 신약 본문대로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맺는말

우리말 성서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는 원문에서부터 유래하기도 하고, 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원문과 번역에서 모두 발생하기도 한다. 문법상의 남성형 표현,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 신(神)의 남

성형 표현, 여성 참여 제한은 원문 자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 남녀 차별 표현, 존대법의 차등 적용은 번역 과정에서, 여성 비하 표현,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원문과 번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남자만으로 번역되는 예가 있었으며, 반대로,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여 사람 일반을 규탄하는 부분에서 문법상 여성형으로 그리고 수사법상 여성형으로 묘사하고 진술하는 예가 있었다. 또한 남자를 “사람”으로, 여자를 “여자”라고 번역하여 여자를 사람과 구별시키는 번역이나, 원문에 없는 존대법을 남성에게는 높임말, 여성에게는 반말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 자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번역자의 의도적인 성차별이나 번역하려는 언어의 문화에 잠재된 성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새로이 번역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2001년판)에서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번역을 시도하였다. 문법상의 남성형 표현을 없애고,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을 없애고, 신의 남성형 표현을 제한하였으며, 여성 참여를 제한하는 본문은 그대로 번역하였고, 남녀의 차별 표현을 없애고, 존대법을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였고, 여성 비하 표현을 없앴다.

성서 번역과 개정은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성서 번역에서 성서 번역자는 성차별 표현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 표현을 지양하는 각도(angle)에서 성서를 새로이 읽고 연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집적되면 성서 번역에 계속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성서 번역자, 감수자, 그리고 독자로서 성서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포적 의미를 찾아서 드러내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다.

* 주요어

성서번역, 성차별 표현, 남성형 표현, 여성형 표현, 여성 비하 표현.

* 참고문헌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신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7.
- 『공동번역 신약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1.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K. Elliger and W. Rudolph, ed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Deutsch, 1967, 1977, 1983.
- King James Version*, 1611.
- Novum Testamentum Graece*, B. Aland et al., eds., 4th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y, 1993.
- The Douay-Rheims*, 1899.
- The English Bible in Basic English*,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 The English Noah Webster Bible*, 1833.
- The English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862, 1887, 1898.
- The Greek New Testament*, E. Nestle and K. Aland, eds., 27th ed., Stuttgart: Bibelgesellschaft Deutsche ; United Bible Society, 1994.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York: New York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73, 1978, 1987.
- The Holy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1996.
-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89.
- The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 New York: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52.
- The New American Bible*, Washington: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1970.
- The New Jerusalem Bible*, Garden City: Doubleday and Company, 1985.
- Th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2.
- Today' English Version*, 2nd ed.,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Arndt, William F. and Gingrich, F. Wilbur,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Brown, Francis,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ed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on the Lexicon of William Gesenius as translated by Edward Robins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07, 1972.

Gingrich, Wilbur, ed., *Shorter Lexic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Fredrick W. Danker,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Köhler, Ludwig, Baumgartner, Walter, and Stamm, Johann Jakob,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67.

Lampe, G. W. H.,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1.

Liddell, Henry George and Scott, Robert, comp.,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8.

Louw, Johannes P. et al.,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Abstract>

Handling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in Korean Bible Translation -Focusing on *New Korean Standard Version*-

Dr. Young-Jin Min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illustrates that problems of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arising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Bible into Korean, sometimes originate from the original biblical texts, sometimes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nd sometimes from both of the above. On the one hand, the existence of grammatical masculine expressions, grammatical and rhetorical feminine expressions, masculine expressions of God, and restriction of women's participation originate in the original biblical texts, while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and gender-differentiated use of honorifics are problems occurring in the translation process. As for expressions of female debasement and gender-discriminative ideology, they are found in both the original biblical texts and the translation process. To be specific, there are cases where the Hebrew and Greek texts included both male and female, but were translated as only male in the Korean Bible. On the contrary, there are cases where grammatically and rhetorically feminine expressions are used to describe and state situations where people in general, both male and female, are being denounced. In addition, translations that differentiate women from humans by translating men as "humans," and women as "women," and translations into honorific expressions that do not exist in the original biblical texts – for example, using deferential expressions toward males and common-form expressions toward females – are not phenomena from the original biblical texts but reflections of intentional gender discrimination by the translator or of the gender-discriminatory culture that shapes the target language.

The most recent new translation,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tried to minimize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Grammatically masculine expressions as well as grammatically and rhetorically feminine expressions were eliminated, and limitations were placed on the use of masculine expressions for God. Texts limiting women's participation were translated literally, while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and female-degrading expressions were eliminated, and deferential expressions were used equally toward male and female.

New translation and revision of the Bible needs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through the changes of generations. Bible translators should continue to pay careful attention to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in their ongoing Bible translating work.

They need to read and study the Bible from a new angle that refrains from using gender-discriminative expressions. As such efforts accumulate, they can be reflected continuously in Bible translations. Another basic requirement may be to have female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Bible translation process, as translators, reviewers and readers. Needless to say, the goal of all such efforts is not to reduce or expand the meaning of the texts but ultimately to find and disclose their implicit meanings.